

A Daily Bread

날짜: 5785 년 시반월 30 일 (서기 2025 년 6 월 26 일)

토라 포선: 코라흐

주제: 지혜로운 아내

민수기 16 장 1 절에는 “고라, 곧 이쁘하르의 아들이요, 케핫의 아들이요, 레위의 아들인 그는, 엘리압의 아들 다탄과 아비람, 그리고 르우벤 자손인 펠렛의 아들 온과 함께 일어 났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드라쉬는 그가 왜 “온 (On)”이라고 불리는지를 묻습니다. 그 이름은, 그의 남은 생애가 모두 애통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미드라쉬는 온이 코라흐와 그를 추종한 자들의 반역에서 극적으로 빠져나오게 된 이유가 그의 아내의 간구로 인한 덕분이었다고 기록하여 전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생 동안, 코라흐와 다른 자들과 함께 일어나 대담하게 모세에게 대항했던 그의 초기의 가담했던 몰염치한 행동을 후회하며 애통하였다고 하며, 동시에 그 자신이 스스로를 구할 성품적 저력이 없어 아내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는 사실을 애통해 했었다 라고 합니다.

그가 왜 “펠렛의 아들 (פֶּלֶט)”이라고 불렸는가? 이는 그를 위해 기적들 (מִיִּצְוֹת, 펠라오트)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온이 반역자들의 최후의 처벌에서 구원받았고, 그들의 사악함을 인식하게 된 일은 실로 기적이었습니다. 잠언 14 장 1 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이 구절은 남편을 코라흐의 무리와 함께 멸망 당하지 않도록 구해낸 온의 아내를 가리킵니다. 그녀가 칭찬받아야 하며 본보기로 여겨져야 할 인물인 것은 바로 그녀에게 내재한 합리적인 판단력과 결단력 그리고 지혜에 의함입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과연 지혜로운 여인들 중 하나로 불릴 정도로 뛰어났었는가를 조명해봅니다. 그녀가 그녀의 남편인 온에게 한 말은 다음과 같이 단순한 논리였습니다: “아하론이 대제사장으로 남는다면 당신은 그의 제자일 것이고, 코라흐가 대제사장이 된다 해도 당신은 그의 제자일 것입니다. 누가 대제사장이 되든 간에 당신은 대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온의 아내의 진정한 지혜는 혼란의 한복판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한 데 있었습니다.

반역이 일어났을 당시, 코라흐는 이미 대중의 상당수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고, 그 중에는 토라 판결소를 이끌어 가는 명망 높은 250 명의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대중의 세력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을 사용하여 독자적인 판단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온의 아내는 대세를 거슬러 가며 중심을 지켜낸 그 어려운 일을 해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녀의 비범한 지혜를 실증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주제: 지혜로운 아내

A Daily Bread

대부분의 사람은 평온하고 안정된 환경에서는 신중하고 사려 깊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람들이 혼란과 동요의 시기에는 내적 평정심을 잃고, 자신의 더 나은 판단을 내려놓고 그에 거슬러 실세인 대중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도전을 때때로 맞이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변이 어지럽다 해도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상황을 평가하며, 다음에 취할 길을 침착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도전을 혼자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각의 상대들은 그 자신들보다 환경에 덜 영향 받고, 미혹에 덜 노출될 수 있기에, 오히려 더 넓은 시야를 제공하며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귀중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내라는 존재는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펠렛의 아들 온이 큰 충격에서 깨어나 주변의 코라흐와 그로 선동된 자들이 그 한날에 사라진 것을 보고, 그들에게 내려진 처벌을 벗어나 혼자 살아 남은 것에 대하여 깊은 안도감과 감사함을 느꼈을 때 그가 체험한 진리였습니다. 이처럼 아내는 남편의 순탄하고 복된 삶에 본질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호와 엘로힘께서 친히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 제도를 세우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2 장 18 절에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고 말씀 하십니다. 이 귀절에서 그를 “위하여” 라는 히브리 단어 (וָעֲזָרוֹ - 네게드)는 그를 “대적하는/반대하는” 이라는 뜻을 동시에 포함 합니다.

어떻게 돕는 보필자로 만들어진 아내가 그를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를 자문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미드라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편이 공로가 있을 경우, 아내는 그를 돕는 자가 되고, 공로가 없을 경우, 그를 대적하는 자가 된다.” 이 말에 대한 즉흥적인 해석은 아내가 남편을 돕거나 방해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씀의 본뜻이 남편의 유익을 위해 여자가 창조되었음을 시사하므로, 이 해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한층 더 깊고 넓고 높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자는 태생 본질적으로 남편의 유익을 위해 창조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도와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남편은 모든 것을 혼자 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옛적의 삶을 통하여 예를 찾습니다. “남자가 밀을 집에 가져오면, 그것을 그대로 먹는가? 아니면 삼베를 가져오면, 그 옷감을 그대로 입는가? “아내가 그 것들을 손으로 가공하여 완성품으로 만들며 이렇게 아내는 남편의 눈을 밝혀주고,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둘째, 남편의 지적 이해력에는 한계가 있기에, 다른 영역들을 총괄하여 이해할 수 있는 남편의 관점은 편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여호와 엘로힘께서는 여자에게 특별한 분별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아내로서의 여자는 이 분별력으로 남편의 사고력의 세계에서 부족한 부분의 결함을

A Daily Bread

지적하고, 도덕적 방향으로부터 구하며, 나아가서는 사회적·경제적·가정적 판단에서도 남편을 현명하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아내는 언제나 남편에게 덕을 세우는 존재입니다. 남편이 똑 바르고 유익한 일에 집중할 때는 그의 아내는 그녀에 내재한 분별의 영으로 더 향상 시킬 수 있는 영역에서 남편의 협력자로서 돕습니다. 반면 그가 해로운 길로 일탈하여 빠질 때에는, 그 남편을 반대하는 자로서 다시금 남편을 올바른 길의 궤도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남편에게 공로가 있을 경우, 아내는 그를 돕는 자가 되고, 남자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를 대적하는 자가 된다” 라고 가르치시는 성현들의 창세기 2장 18 절 해석의 참된 의미입니다.

샬롬.